

# 어니컴의 사회공헌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어브를 꿈꾸다!

“어니컴(주) 직원들의 얼굴이 모두 까매졌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나눔으로 붉게 물들었다.” 올 1월 ‘사랑의 온정나누기’ 라는 이름으로 청주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르기와 쌀을 기증한 어니컴의 이야기다. 어니컴이 2006년부터 실천해온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올해는 (주)트루모바일, (주)디지털오아시스도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 3개 회사가 모여 만들어 낸 사랑의 온정

어니컴에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랑의 온정 나누기’ 프로그램은 어니컴 문일룡 대표가 2005년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무의탁 어르신 경로잔치와 영정사진 촬영 등의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어니컴의 사회공헌은 올 2008년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바로 사랑의 온정 나누기를 고향사랑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후원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지방확산 계획에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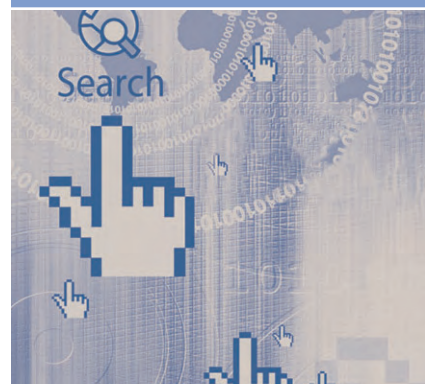
춰 각각 성남과 서울에 소재한 (주)트루모바일, (주)디지털오아시스와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이다. 단지 후원금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3개 회사 130여 명의 임직원이 직접 동참하여 땀 흘리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및 독거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물품을 전달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었다.

98년 설립된 어니컴(대표 문일룡, www.onycom.com)은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Test 전문업체. ‘선 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을 모토로 하고 있는 어니컴의 사회공헌활동도 회사의 모토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그동안 진행해온 ‘수영사랑 이야기’, ‘사랑의 온정 나누기’ 등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자간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문일룡 대표가 수상 안전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안전강사 봉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수영사랑이야기’는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이어오고 있다. 초기에는 보육원 아동을, IMF시기에는 결식아동을, 98년부터는 퇴계로에 있는 제일병원 및 충북대 동아리 수영사랑과 함께 매년 여름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연구치료협회가 주최하는 ‘저소득층 자폐아를 위한 여름 캠프’에도 후원 중이다. 어니컴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과 기업, 기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고리로서 사회공헌 허브를 꿈꾸는 어니컴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noblesse oblige

클 어니컴 김명식 대리

어니컴(주)은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Test 전문업체로, 무선 단말기 MMI 및 SW개발, 무선 단말기 및 Application SQA, SW Auto Test Tool 공급, Embedded SW 개발 및 Tool Kit 공급, Web Portal Site 구축, Microwave solution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 국내 최초의 윤리경영인증기업 탄생



## ■비트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등 9곳 윤리경영인증 벤처기업으로 탄생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 산하 벤처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석진 CEO건설팅그룹 회장, 前GE KOREA 회장)가 벤처기업의 윤리경영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벤처윤리경영인증제'의 첫 인증을 받은 기업이 탄생하였다.

주인공은 솔리테크(대표 정 준), 안철수연구소(대표 오석주), 픽셀플러스(대표 이서규), 파크시스템즈(대표 박상일),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 정진욱), 우림인포텍(대표 김연아), 삼광정밀(대표 박상수), 자올소프트(대표 박기준), 이수유비케어(대표 김진태) 등 9곳. 이들은 지난 1월 12일 완료된 벤처윤리위원회의 최종평가에서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의 '벤처윤리경영인증기업'으로 탄생한 것이다.

## ■표준협회에 의뢰하여 세계SR표준을 준거틀로 하는 평가지표 개발

협회는 벤처윤리경영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해 한국표준협회 SR(사회적책임)표준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의뢰를 받은 표준협회는 오는 2010년 제정될 예정인 세계SR표준(ISO26000)을 준거틀로 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후 평가지표를 보완키 위한 시범평가를 거쳐, 지난 9월에 모두 10개 항목(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와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종업원 관리,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환경, CEO의 윤리경영 의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총49개 소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12월까지 신청한 20개 기업에 대한 표준협회가 직접 담당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표준협회 소속 평가 전문가를 2인1조로 기업에 파견, 2일 이상 현장중심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9곳이 현장평가결과 '합격'되었고, 최종적으로 윤리전문가로 구성된 윤리경영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윤리경영인증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벤처업계가 처음 국내에 선보이는 본 제도는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과연 그 까다로운 평가지표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향후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협회는 윤리경영은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요소임을 설파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 ■인증기업은 향후 정부포상, 기업신용평가, 대기업 상생협력 우대 계획

윤리경영인증제는 개별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를 파악하고, 보완해야할 점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벤처윤리위원회 강석진 위원장은 "평가지표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계SR표준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벤처기업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막상 9곳이 통과하여 놀라웠다"며 "벤처기업도 이제 글로벌 경영을 위한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협회는 벤처윤리경영인증 기업명단을 정부, 기업평가기관, 대기업 상생협력팀 등에 통보하여, 정부 포상을 받거나, 기업의 신용평가를 받을 때 우대(인센티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업 상생협력팀에는 다른 조건이 유사할 경우 윤리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을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으로, 대다수 상생협력업무 담당 부서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